

[보도자료]

이 자료는 **2010년 3월 18일(목)**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유연근무 확대 통해 일가족양립 활성화 꾀해야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, "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: 정책이용
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" 보고서 발간

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.

배포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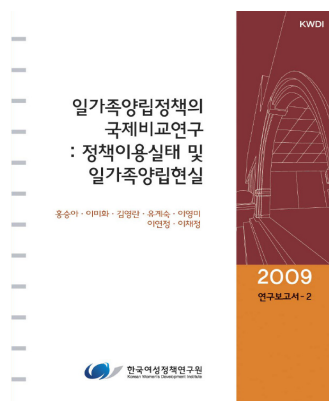
배포 날짜 : 2010년 3월 18일(목)

언론 담당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외협력·정보팀 홍보담당 황애리

(연락처: 02- 3156- 7296, 이메일: aeri2008@kwdimail.re.kr)

보고서 관련 문의 : 홍승아 연구위원

(연락처: 02- 3156- 7149/ 이메일: hongsa@kwdimail.re.kr)



<2009 연구보고서>

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: 정책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

연구책임자 : **홍승아** 연구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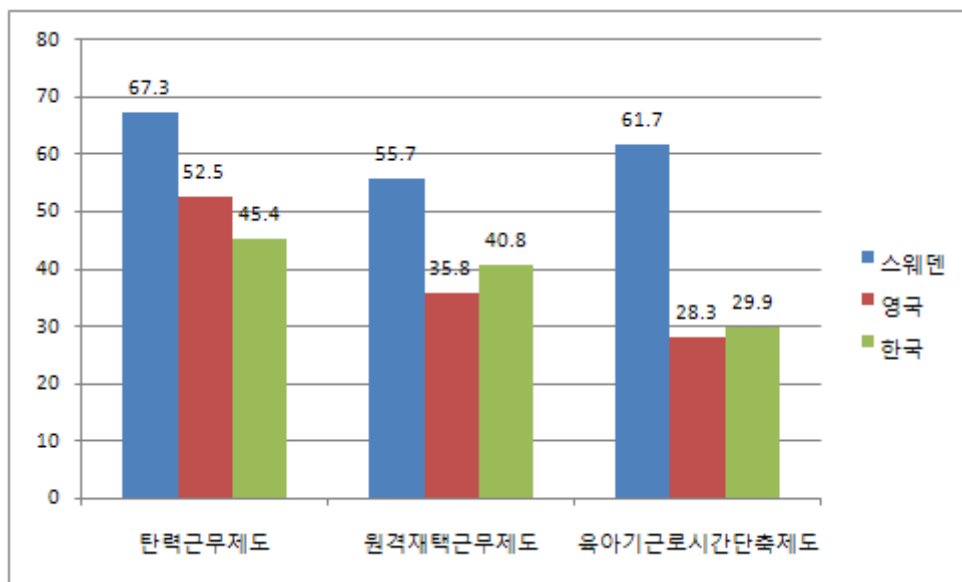
분야 : 노동/일가족양립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)이 2009년 12월에 발간한 『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: 정책이용 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』 보고서에 따르면, 한국근로자의 경우 일가족양립 위한 제도 인지율에 비해 시행정도와 제도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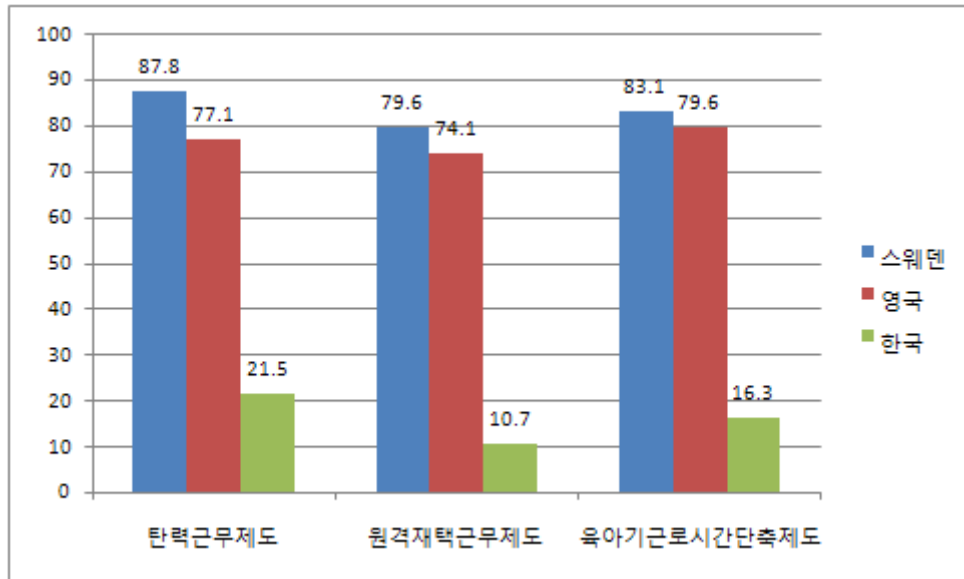
일가족양립 위한 제도 활성화위해 대응방안 시급

본 보고서에 따르면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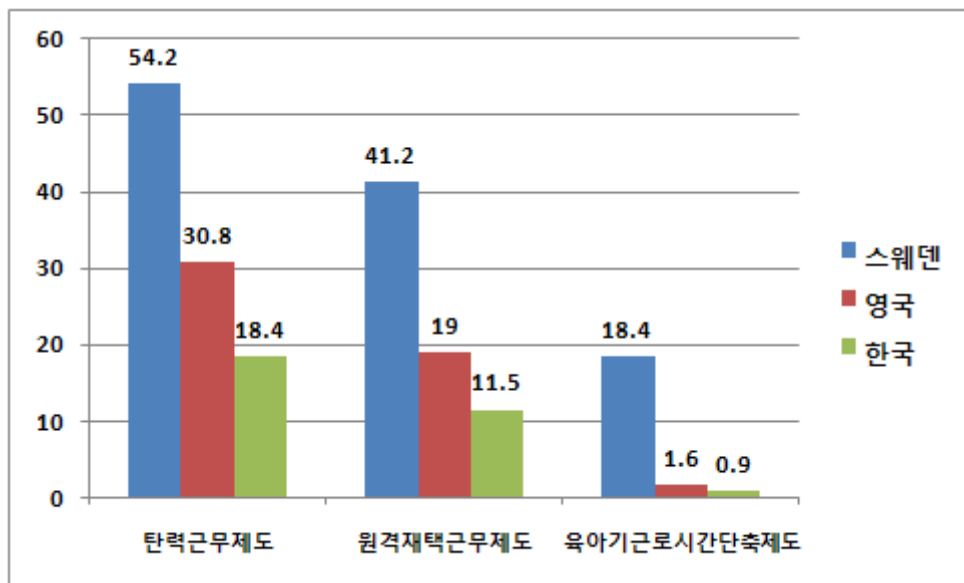
- 일가족양립을 위한 노동시간정책인 탄력근무제, 원격/재택근무제도,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3가지 항목에 대한 영국, 스웨덴과의 비교 조사 결과, 한국근로자의 경우 제도 인지율과 시행정도에 비해 실제적인 제도 이용률이 매우 낮아 향후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.



<그림 1> 제도 인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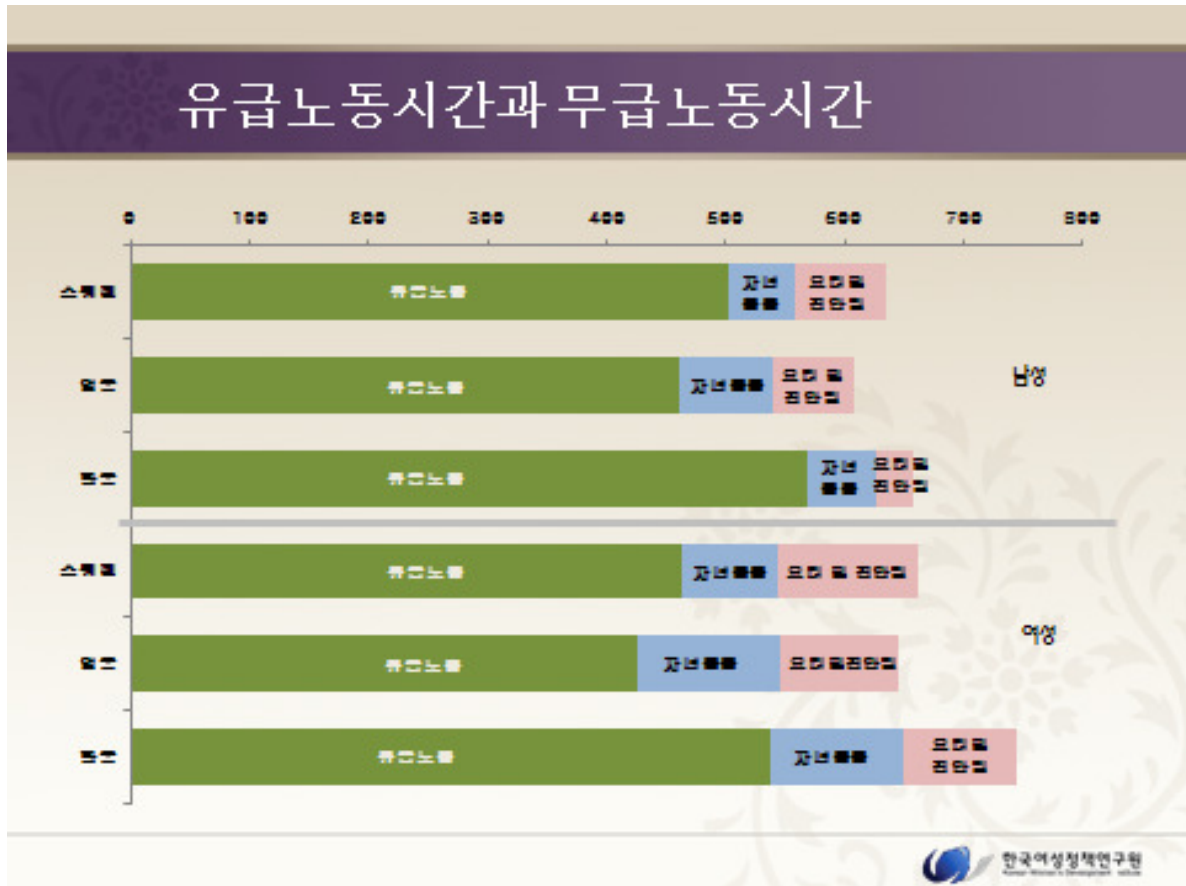
<그림 2> 제도 시행율



<그림 3> 제도 이용경험

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불균형

- 한편, 3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, 한국의 근로자들은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 가족시간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.
- 우선 노동시간을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(자녀돌봄과 요리 및 집안일)로 나누어 살펴보면, 한국의 남성과 여성은 가장 긴 유급노동시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한국의 여성근로자들은 무급노동시간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전체 노동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음.
- 가족시간의 경우에도 한국 근로자들은 “평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”이 2-4시간 미만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, “평일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빈도”도 스웨덴 근로자들이 “거의 매일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(81.1%), 우리나라는 “1주일에 2-3회”가 가장 높게 나타나(44.3%) 가족시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또한 가족 내 성별분업에 있어서도 자녀양육이나 요리 및 가사분담에서 “부인이 많이 하는 편”이라는 응답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음.



유연근무 활성화 통해 일가족양립 지원

- ☐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은 노동시장과 가족영역의 유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므로,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변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유연한 노동시간 근무형태로서 파트타임근무를 발전시키고 확대해나가야 할 것임.
- ☐ 노동시간정책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. 대표적인 정책인 탄력근무제도와 파트타임 근무와 같은 유연근무형태의 활성화가 필요함.

-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퍼플 잡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근무제도와 파트타임노동 활성화가 필요함.
탄력근무가 가능한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시범실시를 통하여 확대과정을 전개하는 방안과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보호와 차별해소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.
- 또한 제도적 측면과 동시에 변화된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업 및 사회의 변화 또한 중요하게 요구됨.
- 유연근무형태는 육아 및 가족생활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가능하기 때문에, 취업중단 없이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 노동의 차별해소 노력이 필요함.
- 정책의 추진에 있어 정규직 파트타임근무형태는 고용보장과 사회보험 혜택을 정규직 전일제근무와 동일하게 부여하고, 노동시간에 따른 비례임금체계 적용,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근무와 전일제근무 전환 용이, 남성과 부모로 정책대상 확장 등의 노력이 필요함.
- 이를 통해 맞벌이부부의 육아에 따른 시간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균형있는 가족생활을 지원가능하며, 궁극적으로는 취업부모의 육아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.

- 또한 일자리 공유(Job sharing)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
일자리 확대의 효과를 갖게 함.

첨부 1. 보고서 목차

첨부 1. 보고서 목차

제1부 이인소득자사회의 확대와 일가족양립정책

- I. 서론
- II. 이론적 배경
 - 1. 이인소득자가족의 확대와 일가족양립정책
 - 2. 일가족양립정책의 정의 및 범주
 - 3. 선행연구 검토
- III. 유럽국가의 일-생활 균형 : EQLS와 EWCS를 기반으로
- IV. 국가별 일가족양립정책의 특성

제2부 국가별 조사

- V. 조사설계
- VI. 국가별 기업의 일가족양립정책 시행실태: 기업조사
- VII. 국가별 근로자의 일가족양립정책 이용실태: 근로자조사
- VIII. 국가별 근로자의 일가족양립 경험과 현실(1): 설문조사
- IX. 국가별 기업 및 근로자의 일가족양립 경험과 현실(2): 심층면접

제3부 3개국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

- X. 3개국 종합비교
 - 1. 기업의 일가족양립정책 실시현황
 - 2. 근로자의 일가족양립정책 이용실태
 - 3. 근로자의 일가족양립 경험과 현실
- XI. 결론
 - 1. 요약 및 논의
 - 2. 일가족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과 과제

한국여성정책연구원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구 한국여성개발원)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- 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.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개발, 여성연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, 복지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.

보도자료 끝.